

근대 인식의 추상성과 구체성

- 1910년대의 단편소설 -

이재봉*

차례

- | | |
|-------------------------|----------------------------|
| 1. 머리말 | 4. 추상화된 '생각'의 한계와 육화된 '지각' |
| 2. 욕망의 구체화와 실현으로서의 '문학' | 5. 마무리 |
| 3. 관념적 '근대인식'과 나르시즘 | |

1. 머리말

우리 문학사에서 1910년대는 근대적 사고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조선의 멸망이 '근대'를 이룩하지 못한 데서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로 간주되었고, 근대적 사고는 잃어버린 국가를 회복하고 문명을 이룩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지식인에게 근대적 사고는 존재의 조건이며 기반이었다. 낡은 사고와 관념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이야말로 그들을 근대 지식인일 수 있게 하는 지표였던 셈이다.

그렇지만 근대적 사고가 기존의 관념 등과 아무런 갈등없이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의 사건이긴 하지만 '자녀중심론'이나

* 부산대학교 강사

‘민족개조론’ 등의 글을 발표한 후 이광수가 받았던 비난과 찬사에서 보듯 당시의 근대적 사고와 욕망은 전래의 관념 등과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식대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논의가 ‘과거’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당시의 ‘문학’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문학이 현실에 가장 민감한 예술양식이라는 명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정치·사회적 영역에서의 담론이 제한되어 있었던 당시에 ‘문학’이 근대적 사고의 중심영역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10년대의 지식인들은 ‘문학’의 논리를 가다듬어야 했고, ‘문학’을 통해 근대적 사고를 형성하고 확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근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1910년대 문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다. 나아가 당시의 문학을 통해 우리 문학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1910년대의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1910년대 단편소설의 ‘근대’ 인식을 밝혀 보고자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당시의 단편소설에서 근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근대적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를 추적하면 1910년대 문학의 특징적 양상을 밝힐 수 있음과 동시에 이후 전개될 우리 문학의 방향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1910년대의 지식인들이 ‘문학’에서 근대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소설에 드러내고 있는가를 따지고자 한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즉 인간은 ‘몸’이 보여주는 대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느끼는 대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몸’은 인간 존재의 조건이며 인식의 원천¹⁾이다. 그렇지만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 규정했던 ‘근대’적 사고가 광범위하게 유행되는 시기가 바로 1910년대이고 보면 당시 문학에서 위와 같은 인식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닌 관념성과 추상성의 한계가 어렴풋이 감지되는 자리에 1910년대 우리 문학의 특징과 방향성이 놓여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1) 정화열, 김현모 역, 『몸의 정치』(민음사, 1999), pp.244-245.

2. 욕망의 구체화와 실현으로서의 '문학'

주지하다시피 근대는 '인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 등이 근대적 인식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초월적이거나 미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그 사고의 중심에 인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근대'적 인식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사고하는 것이다.

凡地球上人種 中에 最히 今世有力한 者를 問하면 誰也오. 白人種이 是也 오. 一중 種-他人種은 只能 文明을 發生하고 白人種은 文明을 傳播하니 文明을 發生하는 者는 天然을 恃하고 文明을 傳播하는 者는 人事를 恃하는지라 所以로 白人種이 全 地球上에 雄飛하는 것이 天幸이 아니라 實는 人事의 優勝한 者로다²⁾

1910년에 발표된 위 글은 백인종이 지닌 우수한 문명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약점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점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의 논리에 따르면 백인종은 그들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종족으로 군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인종이 우수한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들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 했다는 데 있다. 신(神) 중심적이고 초월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적인 근대적 사고로의 전환이 문명의 원동력이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도 백인종의 사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당위성이 마련된다.

인간은 모든 사고와 행위의 주체이며, 나아가 문명과 욕망의 주체이다. 주체로서의 인간은 물론 '스스로 타자와 구분하고 자기자신을 자율적으로 규제'³⁾할 수 있는 '근대'적 인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근대'는 '근대'에 알맞은 인

2) 논설, 「新思想의 注入」, 『매일신보』, 1910. 8. 31.

3) 김진균·정근식·강이수,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 권력』(문화과학사, 1997.), pp.76-78.

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완전한 의미의 근대적 전략은 아닐지라도 인간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인간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도는 구한말부터 나타난다. 근대적 상황에 적응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교육을 강조하는 담론의 출현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1985년 공포된 교육입국 적어는 인간의 활동을 지·덕·체의 영역으로 나누어, 지육, 덕육, 체육이라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신소설이나 교과서에도 활용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어졌는데, 당시 사회적 담론의 중심 영역이 교육이었고 교육의 문제는 지·덕·체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1900년대를 전후한 우리의 근대 초기에 ‘몸’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로크 식의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따라서 지육, 덕육, 체육 중 체육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⁵⁾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몸’ 담론이 상무(尙武)정신과 위생의 강조로 이어져 개별적이면서도 주체적인 담론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국가라는 거대담론으로 흡수되어 버린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체육을 강조하는 논리가 군사교육으로 구체화되고, 아울러 위생은 전체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몸’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재할 때만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몸’은 인간 존재의 조건이 아니라 더 큰 사회와 국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사정은 인간의 심리를 지·정·의로 파악하여 문학의 지위 문제를 본격화하는 논의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사실 지·덕·체와 지·정·의는 서로 다른 차원의 담론이다. 지·덕·체를 교육함으로써 근대적 인간을 완성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지·정·의는 인간 심리에 집중된 논리로 문학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의는 인간을 심리적인 존재로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지·정·의의 논리에서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4) 권브드래, 『한국근대소설의 기원』(소명출판, 2000), pp.39-40. 지·덕·체의 개념과 전개는 이 책 pp.38-53 참조.

5) 같은 책.

은 애초부터 제외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했거나 독립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던 '문학'이 지·정·의를 통해 여타의 종교나 도덕과 같은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커다란 근대적 전환이다. '정'의 표출이라는 논리를 통해 비로소 '문학'이 주체화⁶⁾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近世에 至하여 人의 心은 知·情·意의 三者로 作用되는 줄을 知하고 此 三者에 何優·何劣이 無히 平等하게 吾人의 情神을 構成함을 覺하며, 吾의 地位가 我히 貴하였나니, 일찍 知와 意의 奴隸에 不遇하던 者가 知와 同等한 權力을 得하여, 知가 諸般科學으로 滿足을 求하려 함에 情도 文學·音樂·美術 등으로 自己의 滿足을 求하려 하도다.-중략-情이 이미 知와 意의 奴隸가 아니요, 獨立한 情神 作用의 일이며, 從하여 情에 基礎한 情神作用의 일이며 從하여 情에 基礎를 有한 文學도 亦是 政治·道德·科學의 奴隸가 아니라, 此等과 竝肩할 만한, 도리어 一層 吾人에게 密接한 關係가 有한 獨立한 一現狀이다.⁷⁾

위와 같은 관점에 서면 '정'은 지와 의의 노예가 아니라 '독립한 정신작용'이라는 인식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정'은 이미 천박하지도 않고, 지에 비해 열등하지도 않으며, 이것으로 인생의 의미가 완성됨으로써 '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인간과 인류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된다.

그러므로 '정'의 자유로운 표출이 제한받거나 억압당할 경우, 그 표출인 '문학'의 발달은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은 인생의 의미는 찾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은 '지'의 영역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되어야 하며 문학 역시 과학이나 종교처럼 독립된 체계로서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학은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이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생은 비로소 의미있는 존재로 파악된다. 때문에 문학의 재료는 '인생'이며, 이를 통해 인간생활과 사상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⁸⁾ 즉 문학을 통해서

6) 알렝 투렌에 따르면 '주체화'는 목적적 '나'가 아닌 주격 '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알렝 투렌, 정수복·이기현 옮김, 『현대성 비판』(문예출판사, 1996.), p.262.

7) 이광수, 『文學이란 何오』, 『이광수전집』1(삼중당, 1962.), p.507.

8) 이광수, 같은 글.

만 '인생'은 온전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9) 그래서 당시의 문학에서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인간'과 그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찰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의 표출로서의 '문학' 역시 조선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 통합될 여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문학론에서 문학의 기능이 유난히 강조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이는 '문학'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생이란 근대적 문명에 이바지할 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선명적으로 규정해 버린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 인생의 의미는 '문명'에 종속되는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는 20세기가 극도로 물질화·과학화된 시대이며, 아울러 생존경쟁·적자생존의 자연율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10)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예술)은 인생을 향상시키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11) 그러기 위해서 문학은 물질문명화된 시대의 암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야 하고, 바로 이 점에서 인생과 예술이 일치한다.12)

9) 그러면 우리가 文學을 맛보아 그것이 生命이 有하다 하면 우리의 心的狀態의 餘더한 部分이 滿足함을 얻을가. 다시 말하면 快感을 얻을가, 或 知的 部分이 滿足을 얻을가, 그러나 知識의 滿足으로는 生命을 判斷하기 不可하다. 知識의 滿足은 明瞭와 正確함을 要하니 다시 말하면 明確한 것처럼 知識의 滿足을 증이 업도다. 그러나 明瞭하고 正確을 具有한 것이 만다시 生命을 有하다 論하기 難할 지니-중략-情意在 滿足하면 비로소 生命을 經驗할 수 잇스니 生命은 知識이 認知할 바이 아니오 오직 情意를 노코는 不能하니 웃더한 글을 보고 生命이 잇슴을 感得함은 그것이 情意的 經驗에 感觸됨이라 갖흔 글이라도 知識의 經驗에만 感觸될 때에는 生命을 感得하기 難하고 다시 情意的 經驗에 感觸한 後에 비로소 感得하니라. 崔斗善, 「文學의 意義에 關하여」, 『락지광』 3. 1914. 12., p.27.

10) 文明의 惡澤으로 因호야 吾人의 生活이 上下의 階級을 勿論호고 極度로 物質化호잇으며 極度로 科學化호야 物質主義가 現實生活에 對호 理想이 되야 生存競爭, 適者生存의 自然律이 發現된 所謂 二十世紀가 아난가?

백대진, 「現代朝鮮에 自然主義 文學을 提唱호」, 『新開界』 29, 1915. 12., p.15.

11) 文學도 호호 人生에 對호 藝術 中 一이라, 그럼으로 藝術은 人生을 爲호야 生호者이오 決호 藝術其物을 爲호야 生호 者이 안임으로 露西亞의 近世文豪 「톨스토이」翁이 말호되 藝術은 人生을 爲호야 生호 者라 極言호엿도다. 그러호 즉 藝術이 社會 又は 人生에 對호야 價値잇는 行動을 호호야 홀지호 호한 裨益이 잇서야 홀지호다.

백대진, 앞의 글, p.15.

12) 내의 要求하는 바 藝術은 人生으로 向上, 創造 發展식이는 이 點에 잇나니, 唯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 사회의 생존경쟁이나 양육 강식이라는 논리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개별적인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로이지만, 더 큰 의미에서의 경쟁이란 인종 또는 민족간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수한 인종이나 민족이 그들의 문명을 세계적으로 파급하고 열등한 민족과 인종을 억압하고 식민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논리는 민족성이라는 추상적인 논리로 확대되어 나타나게 된다.

今日 人種競爭이라 民族競爭이라 하는 事實은 一面으로 觀하면 政治的 現狀이라 할지나, 一層 其根柢를 對究하던 民族性 競爭이라 畢竟民族思想을 普及하여 同化作用에 歸着하니, 是以로 列國이 自國思想을 發揮하여 各各 民族性을 競爭함에 勃勃한지라.¹³⁾

결국 '정'의 표출이라는 관점에서 여타의 영역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파악될 수 있었던 문학은, 여기에 이르러 '민족성'이라는 거대담론으로 통합되고 만다. 다시 말해 열등한 '민족성'을 고양하기 위해 문학이 필요한 것이라는 논리에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민족'의 운명에 따라 존재의 양식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개별적 인간의 존재는 민족의 문명을 이룩하는 수단이나 도구로써의 의미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심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전제에서 출발한 문학의 논리가 '민족성'이라는 집단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에 수렴되는 또 하나의 논리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하면 藝術은 改革者이며, 模倣者인 까닭으로. 다시 말하면 人生을 向上식이며, 改革식이며, 創造식이며, 發展식이며, 模倣식이는 것은 藝術임으로 나는 藝術을 人生을 爲하여 要求한다. 그러기에 藝術의 向上은 全生活의 向上이며 實아서, 全生活의 向上은 藝術의 向上아니여서는 아니됨과 같치, 人生의 向上은 藝術의 向上이며, 藝術의 向上은 人生의 向上 아니여서는 아니된다고. 말하자면 人生의 모든 것은 藝術의 되려고 努力하는 것이다. 人生의 最高目的은 藝術的 되는 그곳에 있다.

김억, 「藝術的 生活」, 『學之光』 6, 1915. 2., p.61.

13) 안확, 「조선의 문학」, 『학자광』 6, p.73.

3. 관념적 '근대'인식과 나르시즘

1) 전근대적 인물의 '자살'과 타자성의 배제

베를로 뿔뿔이는 '순수한 자의식'과 '자연화된 의식'을 구분한다. '순수한 자의식'이 '나는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자연화된 의식'은 '나는 지각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은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완전한 추상에서 획득되는 것인 반면, '지각'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 '육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지각'의 바탕 위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영혼과 육체는 단일체이다.¹⁴⁾

1910년대적 상황에서, 지·덕·체를 집단적인 상무정신으로 통합시켰을 때, 그리고 인간을 심리적인 존재로 규정하여 지·정·의의 논리로 전환했을 때, 이를 다시 집단적이고 관념적인 '민족성'이라는 논리로 전환했을 때 그 속에는 이미 구체적 '지각'에 바탕하지 않은 추상적 '생각'만이 남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 즉 '몸'에 기반하는 개별적인 '지각'의 과정이 생략된 채, 모든 것을 추상화시키려는 '생각'을 절대화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1910년대의 소설에서 '근대적 욕망'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선 1907년 발표된 백악춘사 장응진의 「다정다한(多情多恨)」¹⁵⁾의 경우를 보자. 이 작품에는 조선말의 시디적 혼란상과 미친, 죄인으로 가득 찬 감옥과 친구가 처관의 대립 등 당시여 지기될 만한 거의 모든 문제가 '삼성선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과없이 언급되고 있다. 삼성선생이 근대적 인물로 변모하는 과정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작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신법기술(神法奇術)·고담소화(古談笑話) 등이 외국의 신지식·기독교 등과 대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선 근대적 욕망의 한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서구적 지식과 세계관으로의 무장이 그것이다. 조선의 학문이나 세계관은 신법기술이나 고담소화처럼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식과 세계관이

14) 벵황 데공브, 박성창 역, 『동일자와 타자』(인간사랑, 1990.), pp.75-78.

15) 『태극학보』 6~7호, 1907. 1~2.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 근대적 지식인의 양성이 가장 시급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500년을 지탱하여 온 전통적인 지식과 세계관의 저항도 만만찮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1910년대의 소설에서는 이처럼 상반된 두 요소가 선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12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매일신보』 소재 단편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들이 봉건적 가치관 또는 허랑방탕한 생활로 몰락하는 인물이나 이들의 개과천선, 근대적 지식을 쌓은 사람들의 성공담을 주로 형상화하고 있다.¹⁶⁾ 이런 현상은 근대적 지식의 확보 여부가 개별적인 인간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때까지 인식이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식잡기 세 가지로 심세수업 상원코자 충효신의 지지암케 유아불분 오
일홀시 이웃집 김모의 아들 만성(萬成)이 소학교에 입학할 제 김모의 경계
하는 말이

네-나히 밭서, 여답살이니, 소학교에 입학하야 공부를 열심히 하며 교사
의 교훈하시는 바를 명심하야 잊지 마라. 지금은 비록 빈한홀지라도 학업을
심세 하면 서중에 자유만종록이니라(書中自有萬種祿)이니라.¹⁷⁾

제목없이 삼등으로 뽑힌 응모단편이라는 사실만 밝혀져 있는 이 작품에는 부자인 아버지 덕으로 어릴 적부터 주식잡기에만 관심을 쏟았던 화자인 '나'(千濫半)와 개과천선 후 근대적 학문을 익힌 '김만성(金萬成)'의 삶이 대비되어 있다. '나'는 추운 겨울에 오갈 데없이 한뼘잠을 자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지만, '김만성'은 오늘날 큰 부자로 성공한다. 근대 지식이 개인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와 '김만성'을 대조시켜 놓은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6) 한점들은 『매일신보』 소재 단편을 1)전락구조와 부정적 인간형, 2)역전구조와 개과천선적 인간형, 3)상승구조와 입지전적 인간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분리된 별개의 의미를 지향한다기보다, '의미상 계기적 이행관계를 이루면서 다같이 부정적 생활방식은 파멸에 이를 뿐이므로 각성하고 긍정적 생활방식을 취하여 미래적 행복을 성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점들, 『한국근대소설의 정신사적 이해』, 국학자료원, 1933, pp.110-123) 결국 『매일신보』 단편들의 의미는 근대적 지식에 근거한 미래의 행복에 있는 것이므로 근대적 지식인의 문체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17) 金秀坤, 『매일신보』, 1912. 8. 25.

바로 이점에서 전근대적 인물의 퇴장은 필연적이다. 1910년대 단편소설의 부정적 인물은, 봉건적 사상을 지녔거나, 노름꾼이거나, 허황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타락한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전혀 쓸모없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며 그래서 사라져야 할 인물군상들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 부정적 인물의 퇴장이 '자살'이라는 형식을 빌고 있다는 점이다. 죽음이란 문학의 대표적 모티프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 문학사에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은 1910년 이전의 작품에서 흔하게 찾아보기 힘들다.

너가 祖先傳來의 閔名을 써고 半島衰敗의 惡習에 感染되야 天賦의 良心은 消失하고 魔惡의 本性은 漸增하니 富貴우에 富貴를 더하고 榮華우에 榮華를 더치라고…………그러나 上으로 國家도 모르고 下으로 同胞도 모으며 見聞한 거시 詔諛難挾뿐이오 비은 거시…………(?)이놈이 風前의 燈火와 갓흔 權勢를 濫用하야 無辜한 同胞를 死地에 謀陷한 事와 不義의 財物을 欺取 強奪하야 世人에게 許多한 怨恨을 買積한 거시 山海도 不及하리로다.¹⁸⁾

권세를 업고 저질렀던 자신의 온갖 악행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노인이 바다에 투신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자신의 모든 행위가 국가와 동포를 사지에 내몬 것이라 생각하는 노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노인은, '반도강산에 이놈과 갓흔 兇惡이 잇소오면 聖神의 靈火로 一網撲滅하옵시고 이 世上에서 正義로 하며금 恒常悖理를 勝케'¹⁹⁾해 달라는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사회적·국가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악행을 고백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노인의 어조나 행위는 당시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조선의 전근대성을 겨냥하고 있다. 더욱이 서술자는 노인의 자살을 '幸인지 不幸인지?'라는 의문으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어 그 의도를 한층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²⁰⁾

18) 白岳春夫, 「月下의 自白」, 『太極學報』 13, 1907. 9. p.45.

19) 같은 글, p.47.

20) 그런가 하면 金光淳, 「청년의 거울(靑年鏡)」, 『매일신보』, 1912. 8. 11.)에서는 세 사람의 집단 자살을 그려내고 있기도 하다. '민'과 '김'은 모두 주색잡기에 빠져 조상의 유업을 망쳐버리고 이제는 돈이 없어 기생들도 돌아보지 않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더욱이 '박'은 원래부터 돈 한 푼 없으면서 그리로 빚을 얻어

이렇게 보면 1910년대의 문학에서 '자살'은 타자를 배제하는 논리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나타낼 때 이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나'와 '타자' 사이의 차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 할 수 있다.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존재만이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으로 자아중심적이고 주체중심적인 사고의 '근대'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논리를 지닌 타인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여 버리는 것은 인간과 사회를 실체가 아닌 관념으로만 파악하게 한다. 더욱이 당시까지는 조선에서 '근대'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았던 것은 서구나 일본의 일면이었고, 그 결과 근대의 양면을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속에 함몰되어 버렸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근대'를 낙관적 전망만으로 바라보게 한다.

2) '몸'의 확대와 근대적 나르시즘

예를로 뿔뿔처럼 이야기하면 위와 같은 태도는 '지각'위에 기초하지 않은 '생각'의 형태일 뿐이며 추상화된 관념을 절대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만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일종의 나르시즘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타자와 교류할 수 있는 실체인 '몸'의 사유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몸'은 서로 부대낌으로써 타인과 교류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인간 존재를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한다.²¹⁾ 그러므로 이같은 '지각'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근대적 의식 역시 추상적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매일신보 소재 작품을 비롯한 1910년대의 대부분의 소설에서 근대적 지식의 획득과정이 생략되어 있음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즉 근대적 지식과 세계관

주색잡기에 빠졌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떠 안게 되고 만 인물이다. 조상유업을 허무한 주색잡기로 버렸다는 것은 비생산적인 자상으로 인한 조선의 멸망을 은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행위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무서워 대낮에는 나다니지도 못하게 된 '박'은 무책임한 선비의 모습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다. 후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고 그래서 '죽자 죽어 우리갓흔 놈들은 죽어야지'하면서 세 사람은 육혈포로 자살한다.

21) 정화열, 김현모 역, 『몸의 정치』(민음사, 1999), pp.244-245.

을 획득하는 과정은 '세월이 약류파홍야 어언간 김일귀의 나히 이십칠세가 된
의 중학교 대학교 문하리학을 모다 우등졸업'²²⁾하였다는 식으로 요약 서술되
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근대적 지식을 획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아이거나 그렇지 않
고 하더라도 고아와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고학(苦學)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야만 한다. 이는 근대적 지식의 획득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세대간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고방
식과 지식은 아무래도 새로운 세대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근대지식인의 고학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의 의미는 여기서 두드러진다.

밤에는 牧場 한 구석의 불도 켜지 못하는 房 속의 차되찬 「다다미」 우에
서 벌벌 떨고 새벽에는 네 時도 못 되어 일어나서 牛乳를 배달하느라고 그
以上의 고통을 받는다. -중 략- 「눈이여 쏘다져라 만이만이 쏘다져서 나의
忍耐力과 奮闘心을 더욱 두텁게 하여라 쏘다져라 만이 限업시 쏘다져서 世
上の 無用者를 업시하고 好惡한 인물을 업시하여 이 社會를 한결갓치 명백
케 하여라 그리고 永久히 銀世界 光明世界 일우게 하여라 야아 쏘다져는 눈
이여 너도 또한 나의 몸을 鍛鍊함에 無二한 良友오 唯一한 針砭이로다 어서
오너라 나의 벗이여 어서 쏘다져라 나의 針砭이여!!」²³⁾

이 장면은 '오기영(吳基泳)'이라는 고학생이 눈이 쏟아지는 새벽, 홀로 우유
배달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선명한 발자
국을 남기며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고독한 선구자를 연상시킨다. 특히 너무
추워서 발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를 정도라고 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인
내심과 분투심을 시험하기 위한 단련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세계와
의 절연한 대결을 꿈꾸고 있는 영웅의 모습까지 느낄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책상머리에 나폴레옹의 사진을 걸어 놓고, '플루탁영웅전'을 읽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의지를 되새기는 인물이기도 하다.

'오기영'은 '근대'를 향한 여정이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길임을 암시하는 인

22) 김동훈, 「고학심의 성공」, 『매일신보』, 1912. 9. 4.

23) X * 생, 「牛乳配達夫」, 『청춘』13, p.103. X * 생은 방전환의 필명이다. 그는
이 작품외에도 「惟心」에도 「苦學生」이란 작품을 응모하는데, 그 내용이 이 작품
과 별로 다르지 않다.

물이다. 거기에는 근대적 지식의 획득과정에서 타자와의 교류나 논리적 공유는 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대'라는 욕망은 철저하게 '자신'에게서 출발하고 '자신'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타자를 배제했을 때 '근대'적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은 모두 차단되어 버린다. 타자와의 교류나 소통을 통한 욕망의 달성을 애초부터 배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고학(苦學)처럼 자기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방법뿐인 것이다.

실제로 오기영은 우유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교장의 제의-자신의 집에서 편히 공부하라는 것-를 '남의 힘을 빌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리고 또 학비를 면제하여 주는 등의 특전을 주겠다는 교장의 공개적인 언급 역시 우유배달을 그만두지 않음으로써 무시하여 버린다.²⁴⁾

그들이 도움을 거부하는 대상은 '교장'이나 '부모'같은 윗세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상춘의 「두 벼」²⁵⁾에서는 친구의 도움까지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고학수(高學秀)'는 겨울 외투와 담요를 전당국에 맡기고 헤겔의 『우주론』을 주문한다. 그것마저 전당국에 맡기고 나면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이 걱정되지만 고학수에게 그 따위 신체적 고통쯤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친구의 제의를 손쉽게 거절할 수 있다. 또한 「後日에 자내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까」²⁶⁾ 두렵다는 점을 거절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은 그들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거나 그들과 논리를 공유할 경우, 근대적 지식과 그로 인한 결과 또한 그들과 공유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로 대개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가계에서 성장

24) 이상춘의 「기로」에서는 부모의 반대 때문에 지지처럼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25) 「두 벼」 역시 「우유배달부」처럼 「청춘」의 현상문예에 입선된 작품인데, 눈오는 밤의 의미나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다다미방 등의 이미지가 「우유배달부」와 매우 유사한 작품이다. 「두 벼」이란 달과 책을 가리키는 것인데, 눈 쌓인 밤의 달 빛 아래서 밤을 세워 책을 읽는 모습은 문자 그대로 형설지공(螢雪之功)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26) 이상춘, 「두 벼」, 「청춘」 10, p.113.

했고 그 때문에 근대적 지식의 획득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판비 유학생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부르조아적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기학대는 매우 의식적이면서 동시에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식적으로는 이를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학 역시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기 몸의 학대를 통해서 근대 지식을 획득했으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의 도덕적 우월성과 '근대'적 지식의 절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몸'에 대한 학대가 심할수록 실제 그들이 파악하는 현실이나 사회는 추상적인 '생각'의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근대와 욕망은 누구와도 공유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 또는 사회와 유리된 그들의만의 나르시즘으로 단척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 추상화된 '생각'의 한계와 육화된 '지각'

1) 두 평 반의 경험공간과 추상화된 생각의 한계

자기의 몸을 학대함으로써 근대적 욕망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단히 관념적이고 낙관적이다. 『두 벚』에서의 '고학수'가 몇 년이 지난 뒤 산문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대거나, 몰락한 집안을 염료공장을 세워 부흥시키겠다는 모습²⁷⁾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리는 낙관적 미래의 형태는 서사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성취해 낸 산물이 아니라, 고소설의 후일담 형식처럼 나타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한계는 여지없이 노출된다.

27) 이상춘, 『坡路』, 『청춘』 11.

『야 이놈아 우리는 우리 니마에 흐르는 땀을 먹는다 소니 조곰이나 未安
이나 苦痛이 잇습소냐……어리고 철업는 놈아 무엇이 잇재-權利니 義務니
倫理니 道德이니 주눅이니 自由이니 두엇이 잇재 나는 다 모른다』²⁸⁾

권리와 의무, 윤리와 도덕, 평등과 자유는 근대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핵심적인 관념들이다. 그러나 촌부의 말처럼 그들의 관념은 ‘이마에 흐르는 땀’이라는 구체적 지각의 형태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학문을 공부했지만 ‘나’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소와 말까지 자기를 보고 비웃는 듯한 병(病) 아닌 병을 앓는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세상의 추이도 대강은 짐작하고, 문학작품도 읽고 근대 과학의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불쌍한 사람을 가련히 여기는 동정(同情)도 있는 인물이다. 이런 모든 것이 촌부의 질책과 비웃음 앞에서는 허망하기만 할뿐이다.²⁹⁾

이러한 현상은 ‘고학’이라는 자기 ‘몸’의 학대를 내세우고 타인의 몸과 논리를 억압할 때부터 예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들의 사색과 경험공간이 지극하게 한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의 한계는 더욱 선명해지고 그들의 ‘병’ 역시 깊어갈 뿐이다. 그들도 이런 상황을 어렵듯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체는 虛無主義로서 社會主義로 돌아오는 말, 自然主義로서 道德主義로 돌아오는 말과 밋 문예상으로는 寫實主義를 盲信하는 일이 썩갓다하고 로맨틱 思想에도 取할 것 곳 一程가 잇는 것과 主義 그것이 매우 우수하나 그러나 아직까지 무엇이든지 사람이 客氣를 가져야 하겠단 말을 다한 뒤에

「아것저것 다 쓸대 잇소 술이란 것이 長醉不醒은 못하는 것이고 또 돌하면 實地를 팔이지 못하길네 理想이란 물이 存在하는 것이지만은 변연히 이런 줄을 알고 잇다가도 참으로 實世間에 接觸할 때에는 限量업는 哀感이 새삼스럽게 남디다」³⁰⁾(강조-인용자)

28) 현상윤, 「땀박」, 『청춘』 8, p.90.

29)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와 현실의 엄청난 괴리로 읽을 수도 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조선인을 중용(重用)하지 않는 것(일본 식민지 정책의 기본방향은 조선인을 우민화하고 근대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었다. 이재화 편역, 『한국근대민족해방운동사 I』, 백산서당, 1986., p.18.)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조선의 근대 지식인을 긍정적으로 파악했을 리 만무하고 나아가 지식인들의 사회적 활동이나 지식 전파의 노력은 불순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의심하여 그것을 최대한 억제코자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30) 夢夢, 「요조호한(四疊半)」, 『대한홍학보』 8, 1909. 12., pp.28-29.

위의 인용에서 우선 놀라운 점은 허무주의, 사회주의, 자연주의, 도덕주의, 사실주의, 로맨티시즘 등의 용어가 거침없이 나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짧은 기간에 이와 같은 주제들을 두루 섭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만큼 그들은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위와 같은 화두를 잡고 조급하게 시름했을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의 표제인 ‘두 평 반 정도 되는 다다미 방’이라는 뜻을 지닌 ‘요조오한’³¹⁾은 그들의 경험공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침실과 책실, 식당, 서재를 겸한 두 평 반의 공간인 ‘요조오한’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갇혀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오직 한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근대적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망망茫茫한 理海의 怒氣騰騰한 思潮에 各各 子子하게 썩 잇’³²⁾다고 인식한다. 그런 점에서 일년 반을 조선으로 돌아갔다 다시 나타난 ‘채’가 느낀 실제 현실에서의 ‘한량없는 애감’은 육화된 ‘지각’의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한 추상적 ‘생각’이 지닌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색과 성찰의 공간에는, 근대 지식 습득의 일차적 도구가 되는 교과서들이 책상 위에 아무렇게 널려 있고 책보는 풀어도 보지도 않은 채 내팽개쳐져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소설과 문예 서적 등도 펼쳐보지 않은 지 오래이며, 그런 그들은 바라보는 고리끼와 투르게네프의 모습은 그들을 더욱 주눅들게 한다.³³⁾ 그래서 그들은 술에 탐닉하게 되고 생명의 추위를 느낀 나머지 죽음과 반감해 ‘손을 잡고 싶’³⁴⁾어 하기도 한다. 일종의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31) ‘요조오한’은 두 평 반 정도의 일본식 다다미 방을 일컫는 것인 동시에 그들의 지식과 의식의 내적공간이다. 주종연, 『한국근대단편소설 연구』(형설출판사, 1981.), p.49.

32) 夢夢, 『요조오한(四疊半)』, 『대한홍학보』 8, 1909. 12., p.25.

33) 長方形 冊床 위에는 算術教科書라 修身教科書라 中等外國地誌등 中學校에 쓰는 日課冊을 꼬친 冊架가 있는데 그 널호로는 동서러린 大陸文士의 小說이라 詩集 등의 譯本이 面積 좁은 게 恨이라고 늘어 싸혔고 新舊刊의 純文藝雜誌도 두세 종 노릇하며, 學校에 다니는 冊子는 열 十字로 매인 치 그 밋헤 바렸으며, 壁에는 勞動服을 입은 꼬오리끼와 바른손으로 불을 버틴 투우케네프의 小照가 걸 녀터라. 夢夢, 같은 책, p.23.

34) 이광수, 『방황』, 『이광수전집』 14(삼중당, 1962), p.62.

2) 육화된 지각의 획득공간-‘거리’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구체적 현실에서의 구체적 문제해결은 지난 한 일이다. 그래서 1910년대의 많은 소설들에서 근대지식인은 낭만적인 해결을 시도³⁵⁾하거나, 갈등의 현장을 회피하고 만다. 예를 들어 주요한의 『마을집』에서 ‘창호’는 병든 노모의 강권을 물리치고,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의 딸과 혼인하는 것이 ‘새 청년’의 길이라고 친구인 영서를 다그치지만 정작 자신은 저주의 말³⁶⁾을 남기고 마을을 떠나버린다.

진취적인 사고방식은 찾아 볼 수 없고 아무런 정열이 남아 있지 않은 곳, 그래서 자신과 같은 ‘새 청년’을 이해하지 못하고 숨막히게 하는 곳, 그 땅을 저주한다는 것이 창호가 떠나는 표면적 이유이다. 그러나 창호의 말대로 ‘새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아무 생각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구제하거나 그들과 부딪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마을을 떠나 버리는 창호는 결국 근대 지식인의 관념성과 공허성³⁷⁾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산책자’를 연상시키는 주인공을 통

35) 金泳然의 「有情無情」(『청춘』 11)은 이런 낭만적 해결의 좋은 보기이다. 부모는 百萬事에 서무들이 없는 ‘순희’를 들도 없는 머느리로 여기지만, 普成學校와 건문학교를 졸업한 ‘영호’는 너무 어려서 결혼한 탓에 그녀에게 전혀 애정이 없다. 특히 신여성과 기생을 접해 본 그로서는 무지하기만 하고 예쁘지도 않은 ‘순희’가 갈수록 미워진다. 그렇지만 영호는 한 번 얻은 아내와 헤어져서는 안될 뿐 아니라 그것은 아내를 죽이는 길일 수 있다며 마을을 고쳐 먹는다. 그리고 3년간 동경에 유학하기로 결심하고 귀국 후에는 순희를 더욱 사랑하리라고 다짐한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공부하고 난 뒤 귀국했다고 해서 영호가 순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920년대 작품에서 유학 후 귀국한 지식인들이 좌·우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아내를 박대하는 것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36) 그네들의 눈에는 아모 熱도 업소 아모 感情도 업소 다만 그저 먹고 넘기밖에 할 것이 업는가 보오. 나는 다시 가고저 합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업소. 그네들은 밤낮 울기만 하오. 밤낮 걱정만 하오. -중략- 또다시 도라올는 지도 알 수 업소. 언제나 그네들이 참 理解를 가질는지 알 수 업소. 나는 이 쌍을 囑咐하고 떠나려 하오. 나의 父兄의 쌍 나의 祖先의 쌍 이 쌍을 囑咐하려 하오. 아아 어찌까지던지 兄의 主唱을 徹底적하시오. 나의 다만 한 가지 발암은 그것이오…… 주요한, 『마을집』, 『창조』 13, p.62.

37) 한점돌, 앞의 책, p.269.

해 당대 현실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 주는 「습혼 矛盾」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대낮 도심의 거리를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 채 관찰하면서 지식인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기까지 하다는 점에서도 이 작품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³⁸⁾

이 작품의 서두에서 나타나는 톨스토이의 「塵けられし人物」(「학대받는 사람들」-인용자)이나 '勞動服업은 露國文豪' 빅심 콜키의 半身像 등은 이 작품의 서술자 '나' 역시 추상적 '생각'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인물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집에 있기도 무료하고 답답하여 거리로 나선다. 집을 나오긴 나왔으며 갈 곳이 없는 '나'는 목적인 바 없이 전차를 탔다 내렸다 하며 방황한다. 그러다가 '나'는 살찐 부인과 마주친다.

尙宮갓흔 나히 近수 이는 되는 肥滿흔 婦人이 그 뽕뽕흔 기름 흐르는 얼골에 粉은 붓그럽지도 안은지 석앗시불끄르게 바로고 일흠도 알 수 업는 色緇綴오기 全身을 감고 아조 겸진히 나려오나 그 몸집과 그 衣服과 그 色彩! 참 보기 슬게 조화도 못되얏다 그눈—젊은 계집갓치 潤態가 있는 그 눈은 늘—肉담식에 기갈들넌 證據다. —중략— 어—망측흔 것! 열흐로 지니여 갈썩에 침을 비얏따다. 厥女는 如前히 점잔을 썩고 지니여간다. 나의 神經은 더욱 過做히게 되야 조고마흔 兒孩 놀이 겨만흔 支機에 제 힘에 過흔 짐을 지고 오는 것을 보면 열이 나고 人力車夫가 紐머니에서 칼票쓰으는 것을 보면 열이 난다.³⁹⁾

질은 화장에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부인과 자신만한 지계에 무거운 짐진 어린이, 그리고 인력거꾼의 곤궁한 삶의 대조가 화자의 눈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각'된다.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근근히 살아가는 노동자와 피등하게 살찐 유한부인과의 대조는 '나'의 감각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각되는 첫 번째 모순이다. 그러므로 '나'가 그 여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혐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인 셈이다.

거기다 막벌이군들이 '내외(內外) 술집'에 갔다가 허름한 노동자라 하여 받

38)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을 '근대 완성형' 단편소설로 보아 높이 평가하는 것(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서울, 1997., pp.388-395.)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9) 양건식, 「습혼 矛盾」, 『반도시론』, 1918. 2., pp.72-73.

아 주지 않자 개수통을 집어 던져 '의(依)거리장'을 부수었다 하여 파출소에 잡혀와 문초를 받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막별이꾼들을 '아모조록 버려서 남과 갖쳐 지낼 생각'은 않고 술이나 먹으러 돌아다닌다며, 그래서 그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고 호통치는 사람은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순사보(巡査補)이다. 그렇지만 '나'의 생각에는 순사보나 막별이꾼은 별 차이가 없는 인물이다. 둘 다 자각과 향상심이 없이 무능하여 15~6년이나 순사가 되지 못하고 있거나 막노동으로 어렵게 번 돈을 술집에서 탕진하는 못난 사람들이다. 그들의 차이는 오직 관복(官服)의 유무에 있다.⁴⁰⁾ 똑 같은 사람이 관복 때문에 하나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다른 편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이 모순을 '나'는 놓치지 않는다.⁴¹⁾

이런 여러 모순의 정점에 '백화'의 자살이 놓여 있다. 유언을 담은 백화의 '편지'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온 '나'에게 어머니가 건네주는 형식으로 공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인 '나'가 귀가하기 이전까지의 작품 형태와 편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작품의 말미는 소설적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 여하에 따라 '나'는 적극적인 실천이 없는 무기력한 지식인⁴²⁾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죽음으로 철저한 저항을 보인 '백화'의 진실 앞에 더 이상의 방향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⁴³⁾ 그러나 백화의 이 편지

40) 朝鮮사람의 向上心과 自覺업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업거니와 屏門軍 對 巡査補가 自覺이 업고 向上心이 업서 그 地位에 滿足함은 다 一般이다. 그 시어에 別노히 큰 差等を 發見하기 어렵다 다만 官服을 입고 칼을 차워진 仕담에 巡査補는 막 버리軍을 懲戒하는 權利와 資格이 잇는다. 矛盾도 이슴되면 甚하다 참으로 奇妙한 對照다. 같은 책, p.74.

41)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순사보와 막별이꾼일 수밖에 없는 숨은 까닭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인의 공적 진출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던 당시의 식민지 정책은 조선인 순사의 탄생에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나아가 토지조사 사업 등으로 인해 도시로 흘러와 빈민층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막별이꾼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만 향상심 없는 조선 사람이라는 것만이 이유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모순은 깊이 있게 설명되지 못하고 참으로 '奇妙한 대조'로만 비춰진다.

42) 양문규, 『1910년대 한국소설 연구-사회사적 관련양상을 중심으로』(연세대 박사논문, 1990), p.138.

43)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소명출판, 1999), p.142.

도 사실은 '나'의 산책길에서 만난 몇 가지 삽화와 같은 논리에 있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兄님! 아버님이 나를 社會에 나서게 못 믿드셨는이다. 그럼으로 나는 七八年 夜學에 단이여 나의 實力을 補充하려 하였는이다. 十年동안 어린 몸으로 집안 살림을 해야 가며 밤에 이것하는 것도 모게 하시며 역정만 니히시니다. 그럼으로 나는 죽슴는이다.

兄님! 그런더 나는 兄님에게 나의 妹姊 東淳이를 들이웁니다. 요사이 집안 눈치를 본 즉 東淳을 某貴族의 妾으로 주려고 周旋하는 模樣이이다. 그러는 當者 東淳이는 泥中の 蓮花갓치 限死하고 不應히이다.⁴⁴⁾

백화의 편지 속에는 당시 지식인과 부모와의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모든 갈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 자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비생산적이면서 야학에 다니는 아들이 못마땅하기만 하다. 야학다닐 시간에 돈을 벌어서 부모 봉양이나 잘 하라는 것이다. 반면에 '백화'는 야학에라도 다녀서 근대 사회에 필요한 인물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만을 생각하고 집안의 살림만을 책임지라는 아버지는, 자신을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게끔 가로막는 완강한 장애물이다. 나아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는 딸까지 첩으로 팔아먹으려는 부도덕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백화'의 자살은 이렇게 완강한 구질서의 부도덕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백화의 편지는 결국 그와 같은 모순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소설적 장치인 셈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빈부의 격차와 조선인의 열등한 모습, 세대간의 격렬한 대립이 거리에서의 구체적 '지각'을 통하여 형상화되어 있다. '나'의 감각적 지각을 통하여 삶의 다양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도 추상적 '생각'이 지니고 있었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그같은 추상성에서 제대로 탈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집안 食口와 나'는 아주 취미가 다르다며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집을 나와버린다는지, 살찐 부인을 특별한 근거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규정해 버리는 것, 순사보와 막노동꾼의 대조가 의

44) 양진식, 「습혼 矛盾」, p.76.

미가 없으며 무화시키는 등의 행위가 그러하다. 그러나 지향없이 나선 길이기
는 하지만, 대낮의 도심에서 '나'가 얻는 지각은 대단히 중요하다. '나'의 지각
속에 감지된 모순이 단순한 외부적 사실로만 머물지 않는 까닭이다.

'나'는 거리를 산책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순을 깨닫는다. 우선 아주 바
쁘게 살아가는 듯이 보이는 전차 속의 사람들과 한낮 도심의 사람들, 이와는
대조적으로 '社會에 對한 弱한 不平'을 가진 채 '現實界에서 瞥眼間 千丈萬丈
깊을 곳'⁴⁵⁾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는 '나'에서 자기 모순을 깨닫는다. 이런
자기 모순은 나아가 '나'의 현재 모습까지 반추하게 만든다. 그 결과 '나' 역시
모순덩어리로 인식될 뿐이다. 지금까지 꾸던 꿈은 시시각각 깨어지며, 이상을
쫓던 마음은 현실의 냉정한 벽에 부딪혀 이제 비참한 잔해만 남아 있다. 이러
한 인식은 결국 거리에서 획득한 육화된 '지각'이 추상화된 '생각'과 일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 거리에서의 모순이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의 자
의식을 자극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또 다른 차원으로 지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거리에서의 체험은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추상적
'생각'과 어울려 상호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5. 마무리

1910년대의 문학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에서 시작하여 주
로 단편소설의 형태로 그 논리를 가다듬는다. 당시의 논자들은 문학이란 인간
의 심리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정(情)의 표출이라 인식하여 문학을 여타의 학
문이나 종교 등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시켰다. 그렇지만 문학이 민족성을 고양
하고 근대를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집단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으로 전환될
때 1910년대 소설의 추상성도 예견된 것이었다. 이같은 관념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당시의 소설도 이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45) 같은 책, pp.71- 72.

46) 양건식이 '백화'라는 필명을 주로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작품 속의 '백화'
의 유서와 자살은 더욱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1910년대의 단편소설에서는 '자살'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타자성을 배제한다. 그리고 자기 몸의 확대를 통해 근대적 욕망을 달성하여 이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배타성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이 '몸'에 기반한 존재라는 점과 이로써 인간은 서로를 사회화될 수 있다는 데까지 그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은 당대 사회와 현실, 그리고 근대를 추상화된 '생각'으로만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1910년대의 소설에서는 추상화된 '생각'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이 갇혀 있던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섰을 때, 사회와 현실, 근대 등이 지닌 다양한 모순이 구체적으로 '지각'된다. 더욱이 그들에게 '지각'된 여러 모순은 단순히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높은 차원으로 지양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910년대의 단편소설은 관념적 근대인식이 드러낼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주어 그 극복을 우리 문학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Abstract>

The abstraction and concrete of modern cognition - The short story in the 1910s -

Lee, Jae-bong

The literature in the 1910s began with basic questions about what the literature was and mainly the short stories formed the mainstream. The contemporary people thought that the literature was the expression of affectionate feeling that was made up of human's mind and tried to upgrade the status of literature with the same rank as other studies and religions. But when literature produced nationalism and was converted into the collective and abstract recognition, the abstraction of 1910s could be expecting. As the recognition like this was dominant, the contemporary novels had difficulty getting out of this frame.

So the short stories in the 1910s excluded heteronomy in an extreme way like "suicide". And by abusing self-body, they wanted to accomplish the modern desire and showed the exclusionism not to share the thoughts with others. It seemed that they didn't realize that human was based on his body and this fact could make them socialize. As a result, they tried to regard the contemporary society, reality and modernity as only the abstracted thinking.

But the novels in the 1910s had the recognition on the limits of the abstracted thinking. When they marched out the street from the shut narrow space, they cognized concretely the various contradictions that society, reality and modernity implied. Moreover, the many contradictions cognized to them didn't become simply the external events, but gave them the motivation to reflect on themselves in a critical way and indicated the

possibility to enhance in the higher level. In this way, the short stories in the 1910s displayed many problems and limits that ideal modern cognition contained. So We had a long way to go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s.